



‘진정성’ 구축과 복수성: 동아시아 군함도(軍艦島) 사례에서

키무라 시세이 코난여자대학

이 글은 2015년 세계유산에 등록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구성 자산의 하나인 군함도 사례를 바탕으로, 관광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 ‘진정성’에 대해 검토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등 차원이 다른 진정성을 위한 시점이 제안되어 왔지만, 세계유산 등록 시에 요구되는 진정성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진정성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이나 표상의 방법은 사물의 객관적 진정성을 최대화하도록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관광 현장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문맥을 바탕으로 그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재해석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객관적 진정성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맥과 관광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진정성의 해석에 대해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는 현상, 행위가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미치는 풍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I. ‘진정성’에 대한 접근

오래 전부터 관광 연구에서는 관광의 대상이 되는 문화적 산물이나 행사, 또는 그 체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달리 표현하면 ‘진정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다니엘 부어스틴(Daniel J. Boorstin)은 『이미지와 환상』에서 관광객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짜여진(다시 말해 현실과는 다른 ‘가짜’의) ‘가짜 사건’을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Boorstin, 1962). 이에 대해 딘 맥켄널(Dean MacCannell)은 처음부터 관광객에게는 대상이나 체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보다도 얼마나 ‘진짜 같은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연출된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MacCannell 1973, 1999). 이러한 초기의 논의는 어딘가에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짜’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두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변성하면서 이러한 전제가 의심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에릭 홉스봄(E. Hobsbawm)과 테렌스 렌저(T. Ranger)는 ‘전통의 발명’이라는 논의를 전개했으며(Hobsbawm and Ranger, 1983), 조엘 코언(E. Cohen)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비진정성인 것도 진정성을 띠게 된다는 ‘창발적 진정성(emergent authenticity)’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다(Cohen, 1988). 이러한 논의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사물의 의미는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스테이크 홀더)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다면적이 되며, 이러한 여러 주체의 상호작용 가운데 구축되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왕 닝(Wang Ning)은 초기에 논의된 진정성을 객관적 진정성으로,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존재로 전제되지 않는 진정성을 구성적 진정성(constructive authenticity)으로 구별했다(Wang, 1999).

또한, 왕은 이와 같은 어떤 진정성도 관광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 진정성이며, 대상이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그것이 진정이라고 느껴지는지 아닌지를 말하는 실존적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그 요소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하나는 단순히 일상생활과 다른 체험을 하고 있다는 실제 감각을 바탕으로 한 ‘개인 내적 진정성’이며, 또 하나는 친구나 가족, 여행자 공동체 안에서 감정적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상호관계적 진정성’이라고 한다(Wang, 1999). 이처럼 관광 연구에서는 진정성과 비진정성, 즉 진짜/가짜의 경계가 반드시 이항대립적이지 않고 애매하며 유동적이라는 전제가 이미 널리 공유되고 있다. 동시에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자신만의 납득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각각의 ‘진정’한 체험을 관광하며 얻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객관주의도 관광 현장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의 세계유산 관광이 하나의 예다. 오늘날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며, 수많은 오락의 선택지 중에서 관광객이 여행과 그 목적지를 고를 때 세계유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하나의 지표로서 기능하고 있다. 세계유산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것이 전문가에 의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객관적’으로 가치가 보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세

계유산 등록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그 대상이 갖는 ‘진정성’이다.¹

그렇다 해도, 객관적 진정성을 근거로 하는 세계유산 관광 현장에서도 그 안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관광객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객관적 진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군함도’의 사례를 들어, 어떠한 진정성이 관광객 또는 그 지방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II. 세계유산으로서 군함도의 ‘진정성’

1. 구성 자산으로서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군함도’(그림 1)는 2015년 7월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의 구성 자산 중 하나인 ‘하시마(端島) 탄광 흔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은 일본 국내 8개 현(県)에 산재된 23개 자산의 시리얼·노미네이션에 의한 등록으로, 그 중에서도 ‘군함도’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도되면서 커다란 사진이 게재되거나(『読売新聞』 5월 5일 자, 1면; 7월 6일 자, 1면), 헤드라인에서도 ‘군함도 등 세계유산’이라고 소개되는 등(『朝日新聞』 5월 5일 자, 1면; 『毎日新聞』 5월 5일 자, 1면) 특히 상징적



출처: 2007년 8월 27일 필자 촬영.

그림 1 동쪽에서 촬영한 군함도

¹ 일본유네스코협회 연맹이 공개한 ‘세계유산 등록 기준’에 따르면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조약 이행을 위한 작업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 기준 중 어느 것이든 하나 이상 들어맞아야 하며, 진실성(authenticity)이나 완전성(integrity)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적절한 보호관리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다(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2016).



출처: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 2015년 5월 5일.

그림 2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세계유산 등록을 권고한 것을 보도하는 신문기사

인 위치에 있다(그림 2).

하시마는 1890년대 미쓰비시(三菱)에 의해 개발된 해저탄광 섬으로,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고층 아파트나 학교, 병원, 오락시설 등이 작은 섬 위에 건설되었다. 그 결과 섬의 모양이 군함과 닮아 하시마는 ‘군함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시마는 번성하던 시기에 약 5,000명이 살았으나 1974년 탄광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이후 무인도가 되었다. 그때부터 탄광 노동자 가족이 살던 고층 아파트촌은 수십 년 동안 파도와 바람에 마모되어 ‘폐허’가 되었다. 이러한 이도(離島)의 폐허군은 처음에는 일부의 모험가나 사진가들의 ‘낭만주의적 시선’(Urry, 1990)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폐허』 사진집 출판으로 군함도는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0년 말부터 유람선(크루즈) 운항도 시작되었으며, 이 섬을 향한 ‘집합적 시선(collective gaze)’(Urry, 1990)이 형성되었다.

2001년 군함도의 행정구역인 다카시마초(高島町)는 미쓰비시 머티리얼로부터 섬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계속되는 불법 침입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는 측면이 강했다.²

그 후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규슈(九州)의 여러 자치단체에 의해 근대화 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9년에는 군함도(하시마 탄광 흔적(端島炭鉱跡))를 포함하는 ‘규슈·야마구치(九州·山口)의 근대화 산업유산군(The Modern Industrial Heritage Sites in Kyushu and Yamaguchi)’이 세계유산의 잠정적인 목록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마침 같은 해 4월, 나가사키 시(長崎市, 2005년에 다카시마

² 도요타 사다미츠 다카시마초 장(당시)은 『니시니폰신문(西日本新聞)』 2001년 12월 2일 자 조간에서 하시마를 미쓰비시 머티리얼로부터 취득한 이유로 “상륙자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면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는 무단상륙을 금지했으나 폐허 투어나 낚시 등으로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당분간은 간판을 세워 상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초를 편입병합)가 군함도 섬 안을 정비했으며 상륙 투어(landing tour)가 허용되었다(그림 3). 그 이후로 상륙 투어의 참가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그림 4). 2013년 9월에는 일본 정부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 추천 후보로 결정했다. 다음해 9~10월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5월에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권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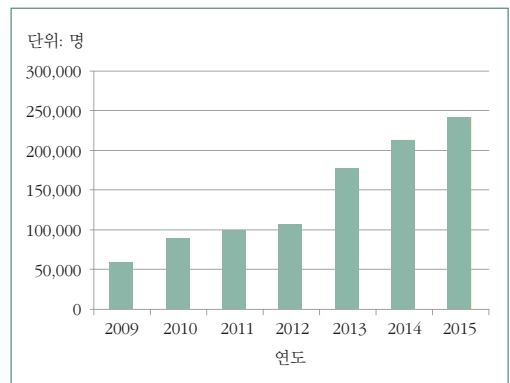
출처: 2009년 8월 25일 필자 촬영.

그림 3 군함도 상륙 투어의 모습

2. 진정성을 둘러싼 ‘견해 차이’

이렇듯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추진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일까? 문화청 홈페이지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철도·철강, 조선, 석탄산업(2015년 기재)’에 의하면 그 ‘현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³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와 관련 지역’은 서양에서 비서양으로 산업화 전이가 성공한 것을 증언하는 산업유산군(Industrial Heritage Sites)으로 구성되어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일본은 공업 입국의 토대를 구축하고, 후에 일본의 기간산업이 되는 조선, 제철·철강, 석탄과 중공업에서 급속



출처: 나가사키 시 경제국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제공 데이터에 의함.

그림 4 군함도 상륙 투어의 참가자 수

³ 인용 문장에서 표기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와 관련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2015년 5월에 있었던 ICOMOS의 권고를 수용하여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이란 제목으로 개정했다.

한 산업화를 이루어냈다. 일련의 유산군은 조선, 제철·제강, 석탄과 중공업 분야에
서 1850년대부터 1910년의 반세기 동안 서양의 기술이 이전되고 일본의 전통문화
와 융합되어, 실천과 응용을 거쳐 산업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산업국가 형성으로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언하고 있다(文化庁, 2016).

즉, 본 자산은 비서양에서 산업화 ‘성공’의 기념비이며, 일본이 산업국가로 가
는 과정을 증언하는 유산으로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ICOMOS가 현지 조사 후 세계유산 등록을 권고한
것은 이러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본 자산의 ‘진정성’을 전문가가 대체로 인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ICOMOS의 권고가 행해진 2015년 5월 4일, 한국의 윤병세 외무부 장
관은 국회 심의 중에 “강제 노동이 행해진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산업 혁명
시설만을 미화하여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등록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가 가
결되었고, 2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 중인 유네스코의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사무총장과 회담하여 일본의 등록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
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유산의 대상은 1850년대부터 1910년으
로 한국이 주장하는 구민간인 징용공 문제와는 연대 및 역사적인 의미가 다르
다”(2015년 5월 8일)고 발언했다. 또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주요 인물
이자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중에 내각관방참여로 임명된 가토 료코(加藤
康子)는 “한국의 집요한 선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징용 문제라는, 본 유산
군의 가치와는 다른 정치 문제를 가져와 논의의 쟁점이 빚나갔다”고 주장했다
(加藤康子, 2015: 39).

이러한 한국에서의 등록 반대 성명을 수용하여 같은 달 22일에는 동경에서
문화담당 사무 레벨 회합, 6월 21일에는 동경에서 한일외상 회담이 이루어졌으
며, 양국이 서로 추천 안전(한국은 ‘백제의 역사지구’) 등록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러나 독일 본(Bonn)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고도 등
록 결정 후에 한국 측이 할 예정이었던 의견 진술 표현을 둘러싼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심의가 하루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종적으로는 ‘메이지 일본

의 산업혁명 유산'은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으나 한국 측의 의견 진술 중에 “대부분의 한반도 출신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사와는 반하여 끌려와 일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물의를 빚었다.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했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등록 후에 기시다 후미오 외상 단이 “forced to work라는 발언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다시금 확인했으며, 원래 한국 측이 준비한 의견 진술에 있던 '강제노동(forced labour)'이라는 표현을 직전에 조정하여 다시 고치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朝日新聞』 2015년 7월 6일, 2면).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또는 군함도)의 의미 부여를 둘러싼 한·일 간의 '견해 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측의 “강제노동이 행해진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산업 혁명 시설만을 미화하여 등록하는 것에 반대한다”(진술한 한국 윤 외무부장관의 발언 등)는 일관된 주장에, 일본 측은 “이번 신청 대상은 1850~1910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징용된 기간과는 맞지 않으며 역사적인 자리매김이나 배경도 다르다”고 대응한 것이다.

앞선 가토의 주장에서도 “논의의 쟁점이 빗나갔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견해를 달리 하면 한국 측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을 솔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계유산 등록이라는 목적을 위해 주제를 명확히 한다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전략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측에서 보면 (그리고 실은 일본 측에서도) 근대 일본의 산업화는 동아시아 식민지 지배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메이지 이후에도 가동해 온 산업시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한 역사인식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즉, 일본 측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유산이라는 '문화'의 평가 문제라고(적어도 표면상으로) 주장하고,⁴ 한국 측은 역사인식이라는 '정치'의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쌍방 모두 확실히 '논의의 쟁점이 빗나가 있다'고 느낄 수

⁴ '메이지 시대'는 1912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산의 가치매김에 대한 이야기가 1910년까지로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 해가 한국병합의 해라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어쩔 수 없다. 이는 마치 '비서양'에서의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 유산군의 가치가 동아시아의 식민지 지배와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도입된 구별인 것처럼 비춰진다.

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진정성’ 문제로 해석해 보자. 다시 말해, 일본 측은 앞의 인용에 서도 밝혔듯 일본이라는 국가가 비서양에서 처음으로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스토리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서 유산군이 얼마나 ‘진짜’=‘진정’인가를 세계유산 등록이라는 방법을 통해 증명하려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적어도 이들 유산군이 ‘진정’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일본 측이 내건 산업화에 관한 맥락(스토리) 자체가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진정성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때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쉬운 ‘사물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맥락의 진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한·일 간의 ‘견해 차이’ 사례가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맥락의 진정성’은 I절에서 확인한 구성적 진정성이나 실존적 진정성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진정성을 어떠한 맥락에서 평가·판단하는가에 따라 거기에서 구축되는 진정성, 실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은 달라진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진정성’을 고려하여, 먼저 그 맥락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뮤지엄의 전시를 분석하고, 덧붙여 관광 현장에서 어떠한 진정성이 실제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군함도의 진정성과 그 ‘맥락’

1. 뮤지엄의 전시로 살펴보는 ‘진정성’

이 절에서는 군함도 근처 뮤지엄(자료관 등의 시설)의 전시를 분석한다. 실은 세계유산으로서 군함도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뮤지엄은 현재 나가사키 시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내에는 군함도와 관련한 4개의 시설이 있다. 이러한 박물관 전시를 살펴보면서 애초에 어떠한 시점으로 군함도를 볼 것인가라는 ‘맥락’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다카시마(高島) 석탄 자료관

군함도에 있었던 하시마 탄광은 정식 명칭이 미쓰비시 다카시마 광업소 하시마 갱(三菱高島礦業所端島坑)이다. 같은 이도이며 미쓰비시의 탄광이 있었던 하시마 근처의 다카시마는 하시마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근대적인 탄광으로서도 다카시마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탄광산업이 유일한 근간산업이었을 때 메이지, 다이쇼(大正), 쇼와(昭和)에 걸쳐 발전했으나 국가의 석탄 정책 변경 등의 영향을 받아 1986년에 문을 닫았다.

다카시마초에 있는 다카시마 석탄자료관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개조하여 1988년에 설치된 이후 탄광의 귀중한 석탄 자료를 보존·전시해 왔다. 2004년에는 건물의 개수공사 등을 하면서 전시의 방법이 변경되었다. 시설은 무료로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직원은 상주하고 있지 않다.

관내 1층에서는 다카시마의 역사를 패널로 소개하고 있으며, 다카시마 탄광 갱 내외도, 다카시마 탄광 직원 클럽의 모형 채굴·굴진용 기계나 작업 시의 장비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처럼 패널의 해석 등으로 잘 정리된 전시가 있는 1층과 달리 2층에는 다카시마의 민구, 화석 자료, 하시마 신사의 미코시(神輿),⁵



출처: 2007년 8월 필자 촬영.

그림 5 다카시마 석탄자료관의 외관



출처: 2007년 8월 필자 촬영.

그림 6 석탄자료관 내의 전시 모습

⁵ 제례 때 신위를 모시는 가마(번역자 주)

탄갱조합의 기념품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2004년에 전시를 변경하면서 1층의 전시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 2층에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관에 직접적으로 군함도를 언급하는 전시는 없다. 뿐만 아니라 다카시마의 섬 안에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구성 자산의 하나인 ‘훗게이 세이 갱 흔적(北溪井坑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다. 하시마 신사의 미코시 등은 하시마 갱이 앞서 폐산할 때 다카시마의 여러 곳으로 옮겨졌을 것이나, 다카시마 탄광의 기술 개발 역사와 이 사실은 관련이 없다. 전시가 변경된 2004년에는 자료관 앞 옥외에 하시마(군함도)의 모형이 설치되었는데, 이 모형에도 설명 패널이 없으며 다카시마(탄광)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 전시 시설은 어디까지나 미쓰비시 광업 다카시마 탄광의 역사나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며 군함도는 그 중의 하시마 갱으로 부분적으로 소개되는 것에 불과하다.

2) 오카 마사하루(岡正治)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탄광에서의 강제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전시하고 있는 시설도 있다.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은 목사·나가사키 시의원·‘나가사키 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였던 오카 마사하루를 기념하여 1995년에 개설되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자료관은 일본의 전쟁책임·가해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후 보상을 목적으로, 행정이나 기업의 원조 없이 시민의 손에 의해 기획



출처: 2016년 2월 7일 필자 촬영.



출처: 2016년 2월 7일 필자 촬영.

그림 7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외관 그림 8 평화자료관 내 전시

및 운용되고 있다(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2016). 1층 전시는 손으로 만든 합숙소나 갱구의 모형이 중심이며 전쟁 중에 국내의 탄광 등에서 노동에 종사한 한반도 출신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덧붙여 이 자료관의 전시는 강제노동에 관한 희귀한 자료나 각지에서 수집된 증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의 벽면이나 층계참에도 짝 차 있다. 하시마(군함도)에 관한 전시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2층의 커다란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으며(그림 8) 강제 연행의 상징적 장소처럼 여겨진다.

3) 군함도 자료관

군함도(하시마)는 2005년 다카시마초가 나가사키 시에 병합되기 이전에는 '나가사키 현 다카시마초 하시마(長崎県高島町端島)'였으며 1955년까지는 '나가사키 현 다카하마무라 하시마(長崎県高浜村端島)'였다(다카하마무라는 1955년에 다른 마을 세 곳과의 병합으로 노모자키초(野母崎町)가 되었다. 특히 옛날 하시마의 맞은편 해안의 집락인 다카하마(구 노모자키초) 집락의 여성은 하시마로 통근했으며 생선이나 야채를 팔아 많은 현금 수입을 얻는 등 하시마와 밀접한 관계였다고 한다(井上博登, 2010). 현재 군함도 자료관이 있는 나가사키 시 노모자키초는 다카시마와는 또 다른 형태로 군함도와 관계 깊은 지역이다. 다카시마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탄광은 문을 닫은 후 대부분 잊혀졌다.

그런데 2003년 12월, 노모자키초상공회 청년부(현 나가사키 미나미 상공회(長崎南商工会))를 중심으로 노모자키초 향토자료관의 일부를 빌려 직접 만든 '군함도 자료관'이 개설되었다(『西日本新聞』 2003년 12월 16일 자 조간). 약 1년 전부터 군함도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모색하던 상공회 청년부는 비영리 단체(NPO) 법인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모임'과 연계했고, NPO로부터 예전 군함도에 사람들이 살던 때의 사진을 제공받았다. 개관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입장료는 무료이며 관리인 고용은 할 수 없었으나, 2016년 3월 나가사키 시 의회의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군함도 자료관 운영을 민간에서 시로 이관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소를 같은 지역의 구 노모자키 복지보건센터 안으로 이설하고 7월부터 유료화해 공용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長



출처: 2009년 8월 26일 필자 촬영.

그림 9 군함도 자료관 입구



출처: 2009년 8월 26일 필자 촬영.

그림 10 군함도 자료관 전시

崎新聞』2016년 3월 3일).

전시는 몇 번이나 재단장을 했으며 기본적으로 NPO에서 빌린, 예전 군함도 사람들이 살던 당시의 사진들로 대부분의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반드시 학술적 이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시되지도 않았지만, 폐허가 된 군함도나 산업유산으로서의 군함도를 전달하기보다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있었음을 전달하려는 자료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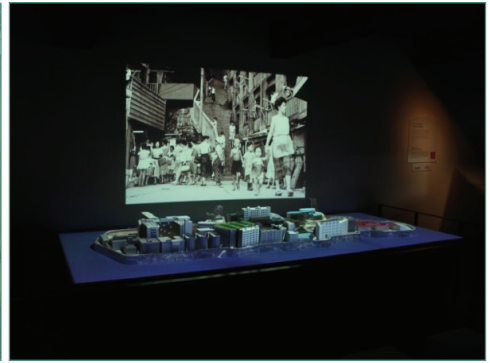
군함도 상륙 투어를 계획한 회사가 2015년 9월 개관했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예전 군함도 생활 모습이나 해저탄광 현장과 유사한 체험이 가능해 당시를 느낄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⁶ 1층의 접수처를 통과하면 전시는 주로 2층에 구성되어 있는데, 2층에서는 먼저 유서 깊은 벽 일면을 스크린으로 이용한

⁶ 지금까지 소개한 시설들과는 다르게 이곳의 입장료는 1,800엔이다. 이는 오늘날 일본의 일반 영화 관람료와 같은 금액이며 국립박물관 등과 비교하면 비싼 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시와 그것을 설명하는 직원이 여러 명 상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출처: 2016년 2월 8일 필자 촬영.

그림 11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 외관



출처: 2016년 2월 8일 필자 촬영.

그림 12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 내 전시

‘군함도 심포니’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군함도에 관련된 3,000장의 사진과 드론으로 촬영한 소재를 콜라주로 만든 영상이 흐르며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구성하고 있다. 그 반대편에는 주제별로 정리된 군함도에 관한 사진을 볼 수 있는 터치 패널과, 자유롭게 시점을 바꿔 상공을 포함한 다양한 각도에서 군함도를 바라볼 수 있는 3D 모델이 있다. 또한, 같은 층에는 군함도 아파트 한 실을 재현한 공간이나 실제로 지하 갭으로 내려가 채광 현장까지의 길을 유사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있다.

이어지는 3층에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가 몇 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마노리즘’이라는 전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전시는 실제 크기 150분의 1의 군함도 디오라마(그 자체는 새하얗다)에 프로젝션 매핑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던 당시 섬의 하루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스크린에는 그것과 연동한 사진이 투영된다. 예를 들어, 아침이 되면 건물에 빛이 비추고, 고층 아파트에서 차례로 사람들이 나와 탄광시설 쪽으로 향해 간다(이러한 사람의 움직임은 작은 빛의 점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낮에는 옥상에서 아이들이 놀고, 저녁이 되면 아파트 창문에 불빛이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디오라마가 기본적으로 쇼와 40년대(1965~)의 군함도를 모델로 제작한 것으로 같은 시기에는 분명 존재하지 않았을 건물도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디오라마는 군함도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

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방문했을 때 설명해 준 ‘네비게이터’ 남성은 군함도의 원주민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폐허가 되어버린 현재의 군함도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재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밀함을 무시한 군함도 모델 쪽이 ‘기억에 가깝다’는 것이다.⁷

2. 관광 현장에서의 ‘진정성’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 그 대상을 엄밀하게 ‘메이지’(실제로는 1850~1910년 사이)만으로 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술했으나, 이는 결코 처음부터 확실히 언급된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 중반에 여러 자치단체가 세계유산 등록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점점 그 ‘맥락’은 다듬어졌으며, 세계유산 등록을 확실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1850~1910년’이라는 시기의 구분이 도입되었다.⁸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본 유산군의 상징처럼 다루던 군함도에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을 안겨주었다. 즉, 메이지(이 유산군의 구분으로 말하면 ‘1910년’)보다 후인 다이쇼 시대 이후에 건설된 군함도 섬 내의 고층 건축물군은 세계유산의 ‘진정성’과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세계유산의 ‘진정성’과 관련된 것은 메이지 시대에 세워진 군함도의 호안(護岸) 부분만이 되어버렸다.

이는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되었다’는 생각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임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많은 관광객은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되었다’고 들었을 때 적어도 그 섬에 대해서 ‘군함’(의 모양)으로 보이는 건축군 그 자체가 중요(=진정한 것)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객관적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오해’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에 확인한 바와 같이 관광의 맥락에서의 진정성은 이러한 객관적 진정성뿐만 아니라 보다 다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면적인 진정성이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실제 군함도 관

⁷ 2016년 2월 8일자 인터뷰 기록.

⁸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별고(木村至聖, 2014)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광 현장에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고자 한다.

하나는 '본래 섬 주민[현지인(ex-residents)]' 가이드 사례다. 2016년 2월 현재 군함도 상륙 투어를 진행하는 5개 회사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륙할 때는 각 회사의 직원이 설명(가이드)을 한다. 회사에 따라 배의 선원이나 안전지도 직원이 가이드를 겸하고 있는가 하면 전속 가이드를 두기도 한다. 그중에는 소수이지만 실제로 군함도에 살았던 사람이 가이드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본래 섬 주민' 가이드는 실제 자신이 군함도에서 체험한 노동이나 생활의 일화를 말해주기 때문에 관광객에게는 '진짜'(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 섬 주민' 가이드일지라도 '세계유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메이지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 중의 탄광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또한 '본래 섬 주민'이어도 당시에는 아이였기 때문에 탄광에서 일했던 경험이 없다고 말하기도 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관광객은 '본래 섬 주민'의 이야기를 가장 '진짜'에 가까운 것으로 체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관광객이 추구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진정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 하나는 상륙 투어로 관광객이 눈으로 접하는 것에 관한 사례다. 군함도라면 처음으로 이미지화하는 섬 내의 고층 건축물이 실제로 메이지 시대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세계유산의 가치와 직접 관계가 없음은 이미 서술했다. 그럼에도 관광객은 이러한 사실과는 관계없이 '진정성'을 체험하고 있으나, 상륙 투어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관광객이 실제로 견학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유명한 고층 건축물(예전의 탄광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살던 아파트나 학교와 병원)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상륙이 허가되는 코스는 이러한 주거 지역이 아니라 예전 탄광 생산 시설 지역일 뿐이다. 다만, 이 생활 시설도 실은 거의 대부분 남아 있지 않고 벽만 남아 있는 등 일부에 그친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이드들이 머리를 짜 내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생명의 계단' 이야기다. '생명의 계단'(그림 13)이란, 이전 탄광의 지하 노동 현장 입구(광구)로 이어지는 계단이다. 군함도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하 탄광 노동 환경은 매우 척박했다. 낙반이나 출수, 폭발사고 등으로 생명을 잃는 일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항상 이 계단에서 오늘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



출처: 2010년 2월 7일 필자 촬영.



출처: 2016년 2월 8일 필자 촬영.

그림 13 제2견학소에서 보이는 일명 '생명의 계단'

그림 14 '생명의 계단'을 설명하는 가이드

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무사히 돌아오면 다시 그곳에서 생명이 붙어 있음에 감사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연 때문에 '생명의 계단'이라 불린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생명의 계단' 이야기는 관광객에게 역시 '진짜'처럼 들리며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생각해야 하는 바는 이 '생명의 계단'이 본래 탄광 조업 당시부터 불리던 이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륙 투어가 시작되고 나서 가이드들에 의해 언제부터인가 만들어져 투어에 참가한 관광객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계단'과 그 이야기는 관광객에게 구상적 진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복수의 '진정성'

관광객에게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는 매우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는 대상의 객관적 진정성을 전문가로부터 보증 받았다는 '신뢰'에 의해 성립된다. 그러나 일단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획득하면 사람들은 그 객관적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깊게 추구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논한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논의와 중복된다. 기든스는 "전문가 시스템이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물질적, 사회적 환경의 광대한 영역을 체계화하는 과학 기술상의 성과와 직업상의 전문가 지식의

체계”(Giddens, 1990: 42)라고 말한다.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이 전문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힘들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전문가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전문가 시스템에 의존해 버리고 만다. 기든스는 이것을 ‘신뢰’라는 말로 설명한다. 이를 인용하면 관광객의 ‘세계유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세계유산’이라는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설사 전문가라 해도 모든 지식에 정통할 리가 없으며 리스크를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 우리 자신이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Beck et al., 1994). 쉽게 말해 ‘실망스런 세계유산’⁹이란 말도 있지만, 그것은 세계유산을 보증하는 진정성(및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전문가 시스템을 소박하게 신뢰하며 그것을 배반한 것에 의한 리스크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 검토해 온 진정성에 관한 논의와 관광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진정성의 모습은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 문제를 뛰어 넘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I절에서는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국 세계유산의 진정성은 어디까지나 등록 대상의 객관적 진정성을 묻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II절에서는 먼저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록을 둘러싼 한·일 간의 알력을 되돌아보며 진정성이라 해도 단순히 그 대상으로서의 진정성(진짜인지 가짜인지)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그 진정성을 평가·판단하기 위한 ‘맥락’이 하나가 아니며,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III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다양성을 파악는 수단으로서 나가사키 시내의 뮤지엄 4개의 전시를 분석했다. 군함도를 탄광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다룰 것인

⁹ 실제로 2011년 7월 2일 『요미우리신문』, “관광의 질을 높인 이와미”(‘세계유산·히라이즈미의 미래’라는 연재의 일부)에는 “이와미 은산은 16세기에 세계 은의 3분의 1 가까이를 산출했으나 세계유산인 호류지(法隆寺) 등과 같이 상징적인 건조물은 아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거리가 없는 ‘실망스런 세계유산’이라고 야유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되어 있다.

가(다카시마 석탄자료관), 전쟁 중 강제노동의 상징으로 다룰 것인가(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옛날 사람들이 생활해 온 삶의 터전으로서 다룰 것인가(군함도 자료관), 또는 그러한 역사적 맥락도 짚어가며 일종의 스펙터클로 다룰 것인가(군함도 디지털 뮤지엄) 등 그 맥락은 실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어떠한 맥락 안에서 군함도를 평가할 것인가, 즉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당연히 그 진정성도 달라진다.

제Ⅲ절에서는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의 디오라마가 현재의 군함도보다도 ‘지역에 가깝다’는 원주민의 말이나, 관광 현장에서 만들어 낸 ‘생명의 계단’을 둘러싼 이야기는 군함도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결코 세계유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에 관한 진정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 현장에서는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서로 다른 진정성이 그때마다 구축되고 실존적으로 체험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이러한 구성적 진정성, 또는 실존적 진정성은 세계유산이라는 전문가 시스템이 보증하는 객관적 진정성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단순히 진정성을 ‘오해’ 혹은 ‘오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광 현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세계유산의 객관적 진정성이 의도적으로 자주 무시/오독되고, 그러한 오해나 오독이야말로 풍부한 관광의 장을 성립시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유산의 객관적 진정성조차도 맥락을 바꾸면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의 장에서 구성적 진정성이나 실존적 진정성을 반드시 오해나 오독으로 여겨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밀도 공간에서의 생활이라는 맥락에서 말하자면 실제로 산 사람들의 증언이나 문서 자료 또는 유사한 장소와의 관련짓기 등으로 군함도의 고층 아파트군 그 자체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규정해 세계유산을 목표로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한정된 공간도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유산군은 ‘1945년 이후’ 일본의 국토영역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1910년까지’라는 시간적 한정을 수용했다고 해도 그 당시는 일본령이었던 타이완 등을 상정하지 않는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대국가의 영역에 한정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으로 전파되고 변용되어 가는 것이다. ‘비서양’에서 산업화의 성공을 논한다면 적어도



출처: 2016년 3월 1일 필자 촬영.

그림 15 대만 신평계 탄광의 공동 목욕탕



출처: 2016년 3월 1일 필자 촬영.

그림 16 대만 신평계 탄광의 공동 목욕탕 해설 패널

여기에서 말하는 ‘비서양’이란 어디인지, 그 성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동아시아라는 영역·스케일의 재발견이 중요하지 않을까.¹⁰ 앞서 설명한 타이완을 예로 들자면, 타이완에는 일본령 시대에 전해진 기술이나 산업 기반이 많은데 요즘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¹¹ 이에 대해 일본 본토의 기술이 자주 수출되었다는 관점에서 공통성이 지적되나, 공통점은 결코 기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다. 사람의 교류가 있다면 그곳에 문화의 교류도 생겨난다.

그림 15는 타이완 신베이 시(新北市)에 있는 신평계(新平溪) 탄광의 공동 목욕탕 사진이다. 이러한 탄광의 공동 목욕탕은 아시아 특유의 문화다. 분명히 유럽 탄광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고 새까맣게 된 몸을 씻었던 샤워 룸은 확인되나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욕조에 몸을 담그는 형태는 필자가 아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1년에 유네스코의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에 등록된 탄광화가(炭鉱画家) 야마모토 사쿠베이(山本作兵衛)의 탄광기록화에 기록

¹⁰ 유럽에서는 ‘유럽 산업 유산의 길(ERIH: European Route of Industrial Heritage)’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¹¹ 특히 유명한 것으로 기사·하타 요이치가 건설에 전력을 다한 우잔토(烏山頭) 댐 등을 들 수 있다(胎中千鶴, 2007).

된 것처럼, 탄광 노동자들은 일이 끝난 후 모두 함께 같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그 물은 그들의 몸에 붙은 석탄의 더러움으로 새까맣게 되었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러한 물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욕조를 여러 개 준비하고 처음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한 욕조와 나중에 여유롭게 몸을 담그기 위한 욕조를 구별하게 되었다. 타이완의 탄광에는 일본의 탄광과 마찬가지로 욕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아시아의 입욕문화, 그리고 탄광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메이지 일본의 '위업'에 대한 혼장만으로는 일본 외의 아시아 관광객의 공감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바와 같은 동아시아라는 넓은 시야에서, 역사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물론 문화유산으로서도 새로운 가치를 지닌 것이 된다. 동아시아에서는 '식민지에 의한 근대화'라는 점에서 아픈 기억의 동반을 피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생활·노동 문화나 기술 면에서의 공통점 발견은 국가를 초월하는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투고일: 2016년 4월 12일 | 심사일: 2016년 7월 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4일

참고문헌

- 加藤康子. 2015. "なぜ世界遺産は政治問題にされたのか." 『週刊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7월 28일号, 39-41.
-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2016. "長崎平和資料館とは?." 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ホームページ(<http://www.d3.dion.ne.jp/~okakinen/>, 검색일: 2016. 3. 27).
- 木村至聖. 2014. 『産業遺産の記憶と表象—「軍艦島」をめぐるポリティクス』.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 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 2016. "世界遺産の登録基準." 公益社団法人日本ユネスコ協会連盟ホームページ(<http://www.unesco.or.jp/isan/decides/>, 검색일: 2016. 4.

12).

- 井上博登. 2010. “炭鉱社会像の多様性へむけて—「軍艦島」におけるヤサイブネとアキナイ.” 『現代民俗学研究』 2, 81-90.
- 胎中千鶴. 2007. 『植民地台湾を語るということ—八田與一の「物語」を読み解く』. 東京: 風響社.
- Beck, Ulrich, Anthony Giddens, and Scott Lash.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orstin, D. J. 1962. *The Image: or, What Happened to the American Dream*. New York: Atheneum(星野郁美·後藤和彦 訳. 1964. 『幻影(イメジ)の時代—マスコミが製造する事実』. 東京: 東京創元社).
- 文化庁. 2016.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製鋼, 造船, 石炭産業(平成27年記載).” 文化庁ホームページ(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shokai/sekai_isan/ichiran/sangyokakumei_isan.html, 검색일: 2016. 3. 27).
- Cohen, E. 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3), 371-386.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松尾精文·小幡正敏 訳. 1993. 『近代とはいかなる時代か?—モダニティの帰結』. 東京: 而立書房).
- Hobsbawm, E. and T. Ranger, eds.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前川啓治·梶原景昭 訳. 1992. 『創られた伝統』. 東京: 紀伊國屋書店).
-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 589-603.
- _____. 1999. *The Tourist: A New Theory of Leisure Class*.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安村克己他 訳. 2012. 『ザ・ツーリスト—高度近代社会の構造分析』. 東京: 学文社).
-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ies*. London: Sage Publications(加太宏邦 訳. 1995. 『観光のまなざし—現代社会におけるレジャーと旅行』.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49-370.

Abstract

Construction of “Authenticities” and Plurality: A Case Study of Gunkanjima in East Asia

Shisei Kimura Kona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authenticity” in tourism by analyzing the case of Gunkanjima (battleship island), which was listed as a UNESCO’s world heritage site as the “site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Previous researches have proposed several perspectives on the dimensions of authenticity such as objective authenticity, constructive authenticity, and existential authenticity, where in general, UNESCO’s world heritage requires objective authenticity. Accordingly, the preservation and re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aimed at UNESCO world heritage listing tend to maximize objective authenticity. However, in the field of tourism, people reinterpret the authenticity of cultural heritage in various contexts, and not all of them conform to objective authenticity. This study introduces various interpretations of authenticity that actually takes place in the various contexts of the field. It also suggests the potential impact of tourism on the authenticity of cultural heritage.

Keywords | objective authenticity, constructive authenticity, existential authenticity, Gunkanjima in East Asia, cultural heritage